## 그만 두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 물론 있습니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상담전화 : 02) 3147-1505**
**E-mail : hansori1986@hanmail.net , uvep@chol.com**

성매매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아갈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회원단체**

다비타의 집 * 두레방 * 막달레나의 집 * 벗들의 집 * 새날을 여는 청소녀 쉼터 * 쏘냐의 집 * 여성문화인권센타
여성이야기공동체 * 오데레사수녀 * 은성원 * 정다운집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햇살센터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부산성매매피해여성지원상담소'살림' * 속초성폭력상담소

**< 피해 구제 법률상식 >**

윤락행위등방지법안 제20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조항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에 의거하여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선불금 등 모든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는 무효이며 윤락강요는 처벌되며 피해여성은 보호 받습니다.

## 구조요청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여성상담실**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 성매매 근절을 위한 6가지 실천

1 하나. 선언합시다!
나는 성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인권과 평등을 소중히 여깁니다.

2 둘. 항의합시다!
성매매를 부추기는 언론에 항의합시다. 불법업소 광고가 신문, 잡지에 버젓이 실리고 있습니다.

3 셋. 바꿉시다!
양성평등 세상을 위해 노력합시다. 성매매, 성폭력은 가부장적 가치관과 여성의 낮은 지위에서 시작됩니다.

4 넷. 신고합시다!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과, 성매매의 근절을 위해 모든 시민이 성매매 업소를 신고합시다. 성매매는 범죄입니다.

5 다섯. 성매매 방지법안 통과!
국회 계류중인 성매매방지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 국회에서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줍시다.

6 여섯. 후원하세요!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여성단체들에 후원, 또는 자원활동으로, 성매매 없는 평등세상 만들기에 동참합시다.

# 성매매 없는 세상 만들기

# 성매매, 누가 하고 싶어서 할까요?

### ✲ 성매매 여성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직업이라 문제가 없다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 여성은 대부분 가난, 차별, 학대, 가정불화 등의 사회적, 경제적 이유나, 허위광고, 소개업자의 속임수, 인신매매 등에 의해 성매매산업에 유입됩니다.

### ✲ 그래도 돈벌기가 쉽지 않냐구요?

허위광고에 속아 들어가지만, 돈을 벌기는커녕 빚만 쌓입니다.
업소를 옮길 때마다 수백만원씩 붙는 소개료, 칠-팔십만원이나 되는 1평짜리 쪽방월세, 세탁비, 화장품값, 심지어 콘돔값까지 여성들의 빚이 됩니다.
그렇다고 화대가 고스란히 성매매 여성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화대의 10-50%만 여성들에게 돌아가지만
시간당 삼만원이나 하는 지각비가,
하루에 백만원이나 하는 결근벌금이 무서워,
성매매여성은 몸이 아파도, 생리를 해도 일을 하고,
그래도 빚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업주가 성매매된 한 여성에게서 한 달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은 3천만원 이상입니다.(청량리 588의 경우, 30분간 70,000원, 하루 15명, 1달 30일을 계산해보면, 70,000원*15명*30일=31,500,000원)
한 번 성매매 산업에 들어가면,
업주들은 결코 여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 여성의 돈벌이를 위한 산업이 아니라,
성매매 여성을 '기계'라 부르는
알선업자, 업주, 포주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한 산업입니다.
성매매 여성은 이들에게 철저히 이용당할 뿐입니다.

### ✲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둘 수 있을까요?

업주들은 자신들이 온갖 구실로 부풀린 빚을 성매매 여성들이
서로 빚보증을 서게 해서 스스로 감시하게 만듭니다. 그만두겠다고 하면
가족들에게 알린다는 협박이나 감금도 행해집니다.
또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성매매여성까지도 처벌하기 때문에
신고하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 빠져나온다 해도 사회의 부정적 시선과
떨어진 자존감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적응이 힘듭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들을 위한 복지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성매매 업주와 알선업자들은 이들을 다시 성매매 업소로 끌어들입니다.

### ✲ 성매매 업소가 없어지면 성폭력이 늘어날까요?

성매매 업소가 줄어들면 성폭력도 줄어듭니다.
성매매 종사자 비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성폭력 비율도 낮습니다.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다고 하는 편견은 성매매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핑계에 불과합니다.
흔히 사창가라고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 뿐 아니라,
다방, 안마시술소, 룸살롱, 노래방 등 우리 주위의 수많은 곳에서
성매매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매매는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한 또다른 '놀이'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범죄일 뿐,
어떤 경우에도 결코 옳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매매산업이 일상화되는 것은 성폭력이 일상화되는 것이며,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상화되는 것입니다.
성매매여성이 보다 쉽게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고, 나아가 성매매 없는 평등세상을 만드는 것은 시민사회의 몫입니다.

### ✲ 윤락녀나 창녀, 매춘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맙시다.

(우리의 일상언어도 성매매에 대한 편견을 담고 있습니다)
윤락 [淪落: 타락하여 몸을 버리는 것] 몸을 '파는' 행위만이 윤리적으로 타락했다고 보는 불평등한 용어입니다.
매매춘 [賣買春: 성(春)을 사고 파는 것] 성을 봄(春)에 빗대, 성을 '사는 욕구'를 정당화한 말입니다.
성매매 [性賣買: 성(性)을 사고 파는 것] '성'을 사고 파는 거래의 의미를 부각, 여성만을 탓하는 윤락이나,
여성의 성을 봄에 비유한 매매춘에 비해 올바른 표현입니다. 성매매 하는 남성, 성매매 된 여성, 성매매 피해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